

K팝 스타 총출동 '여수 밤바다' 노래한다

MISS A·2PM·버스커 버스커 등 빅오에서 펼치는 화려한 춤·환상 무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비스트, 2PM, MISS A, 원더걸스, 다이내믹 듀오, 버스커버스커, 리쌍, 정인, 엠블랙, FT아일랜드, 제국의 아이들..

세계를 흥린 K팝의 주역들이 여수 세계박람회(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 기간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박람회 조직위는 8일 "전세계 한류 열풍의 주역, K-POP 스타들이 '여수 밤바다'에 대거 집결 월드팝, 클래식 등 매주 다양한 기획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K-POP 특별초청공연인 '빅웨이브 콘서트(Big Wave Concert)'에는 원더걸스, 다이내믹 듀오를 비롯해 매주 샤이니, 슈퍼주니어 등 총 20여 팀이 참여한다. 이들은 화려한 춤과 노래가 결합된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그림처럼 펼쳐진 바다 풍경과 공연을 함께 볼 수 있는 빅오 해상무대에서 선보이는 이들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수 밤바다'의 주인공 버스커 버스커가 6월 15일 박람회장에서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들이 부른 '여수 밤바다'는 최근 인기를 끌면서 박람회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기도 했다.

빅웨이브 콘서트 외에도 현대차그룹 등 기업 후원, 방송 프로그램 유치 등을 통해 매주 1회 이상 총 16회의 공연을 개최한다.

이 공연에는 015B, 김조한, 부활, DJDOC, 김경호 등 국내 인기가수와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DJ로 활동 중인 메이슨 베이츠 등 해외 스타들도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짧은춤 뿐 아니라, 중년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이들은 한 여름 밤바다에서 멋진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박람회 문화공연 상세 스케줄은 홈페이지(www.expo2012.kr) 문화예술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장 내 모든 공연은 입장권을 구매한 관람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입장권은 박람회 홈페이지(www.expo2012.kr) 및 인터넷 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입장 날짜는 지정돼 있지 않다.

조직위 박안석 특별공연과장은 "전시뿐 아니라 해변에서 이뤄지는 문화공연을 통해 박람회를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슈퍼주니어 등 K팝 주역들이 공연을 펼치게 될 해상 무대 '빅오'에서 지난 5일 리허설이 열려 환상적인 조명과 분수를 여수 밤바다에 쏟아 올리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MISS A



버스커 버스커

"박람회 성공 개최로 여수를 세계에 빛내자"

김종석 여주시장



"박람회 성공 개최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고 여수를 세계에 빛내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김종석 여주시장(사진)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박람회 준비과정에서 모든 불편을 감내한 여주시민,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와 전남도,

각급 기관, 단체 및 언론 등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올바른 음식 및 숙박 문화 정착 노력과 청결·질서·친절·봉사의 엑스포 4대 시민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박람회는 여수의 미래가 걸린 천재일우의 기회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여수는 명실공히 국제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수도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박람회 성공개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오는 7월 여수에서 열린 '환태평양 도시발전협의회 세미나'에서 세계 4대 미항인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입문택기자 mtlim@

여수세계박람회 오늘 '미디어데이' ... 국내외 언론인 500여명 참석

여수세계박람회의 화려한 속살이 9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식 공개된다. 박람회 조직위는 8일 "개막을 앞두고 9일 전시장을 전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미디어데이(Media Day)'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스페인, 브루나이, 캐나다 등 20여 개 국가 150여명의 해외 언론인과 국내 언론인 350여명 등 총 500여명이 넘는 기자들이 박람회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전시관이 공개돼 자유로운 취재를 돕게 된다.

오후 1시부터는 미디어데이 오픈식을 연다. 또 강동석 조직위원장이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박람회 개막 전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미디어데이는 3회에 걸친 예정행사를 통해 나타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 실제 박람회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미국, UN, 포스코 등 30여개 전시관에서 홍보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미리 보는 전시관 ③ 로봇관·기후환경관



6.5m 크기의 초대형 로봇 '네비'가 대우조선해양로봇관을 찾은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첨단 로봇들과 함께 K팝 노래에 맞춰 춤을

◇대우조선해양로봇관
춤을 추고, 축구 경기를 하는 신기한 로봇을 구경할 수 있는 곳. 첨단 로봇 73대가 전시되며, 전시관 규모는 지상 1층(일부 2층)의 연면적이 2369㎡에 달한다. '인간과 자연, 로봇의 공존'을 주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대신 해주는 로봇의 역할 등을 선보인다. 사이버 여전사 '에버-4'와 프랑

스 '나오', 영국 '데시퍼안', '메로로봇' 등이 K팝 노래에 맞춘 춤, 합창, 연기 등을 펼쳐 관람객과 어울리도록 연출했다. 또 수중 6000m 심해에서 인간을 대신한 로봇들의 자원탐사, 광물채굴 모습을 보여주도록 구성했다. 로봇 꿈나무들이 로봇 설계·제작과정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도록 꾸렸다.



남극의 빙벽과 눈보라를 재현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기후환경관의 모습.

남극 눈보라에 북극곰 ... 관람객 '더위 탈출'

◇기후환경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기후 환경을 보여준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박람회와 맞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와 기후의 관계 등도 알려준다. 기후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흑한 추위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의 삶도 느껴볼 수 있다. 실제 남극의 빙벽과 눈보라를 재현해 무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빙벽 위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실물 같은 북극곰도 3D 안경을 쓰고 만날 수 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위기에 빠지는 북극곰과 사라져가는 빙하의 모습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ShinYoung http://yeosu3.g-well.co.kr

마지막 지위를 더 욕심난다!

여수 최대 명품 브랜드타운의 완성 **신영웅천지웰 3차**

청약 일정	1순위	2순위	3순위
특별공급	5.9(수)	5.10(목)	5.11(금)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무이자

신영웅천지웰 III G:well homes

웅천택지지구의 비전에 2,370가구 명품 브랜드타운의 가치!

지위의 가치 | 1·2차 100% 분양과 높은 프리미엄의 가치가 검증된 웅천지웰, 여수 최대 2,370가구 브랜드타운 프리미엄

웅천의 비전 | 웅천지구 1단계 개발의 마지막 분양, 웅천초교, 중심상업지구의 편의시설, 웅천해변공원(예정), 인공해변, 마리나시설(예정)

문화의 중심 | 기획전시장, 공연장,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인 아틀리에, 전망대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되는 예술마루(2012년 5월 박람회시절 완공예정)

혁신적 설계 | 4-Bay 구조, 30평형대 방 4개의 중대형 구조, 35% 이상의 녹지율, 바다와 공원 조망의 25층 초고층

모델하우스 오픈중!
84㎡/101㎡ 총 672가구
문의전화 061)683-7000

신영, 하나다음신락, 한라건설